

# 동학농민혁명 스토리(웹소설) 공모전

## [작품 기획 및 캐릭터 설명]

| 응모분야      | 웹소설  | 접수번호 | 이 부분은 기재하지<br>마십시오. |
|-----------|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작품제목      | 녹두장군의 전담 호위가 되었습니다.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분량        | 총20화(본편 18화, 에필로그2화)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장르        | 현대판타지, 역사로맨스, 동양풍로맨스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타겟<br>독자층 | 남녀불문(전 연령)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기획의도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잊혀져가는 소중한 역사인 동학농민운동을 진지하지만 재미있게 그려내어 현대인들에게 다시금 알리고 소중히 기억되도록 하고자 함</li> <li>· 현대인인 주인공의 시야로 바라본 동학농민운동을 통해 당시 그들이 느꼈을 감정과 방향을 전달하기 쉽게 풀어보고자 함</li> <li>· 동학농민운동의 발원지인 전라도를 보다 심도깊은 시각으로 소개하고 그 속에 스며든 당시 역사를 널리 알리고자 함</li> </ul>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작품요약      | <p>경찰특공대 출신 정이준은 폭탄테러 신고를 받고 역사박물관에 출동한다. 그러나 근현대사 전시구간인 '동학관'에서 의문의 기척을 느끼고 대열을 이탈, 팀원들과 함께 그곳으로 잠입하게 된다.</p> <p>'반지?'</p> <p>푸른빛으로 반짝이는 반지를 발견하고 집어 드는 순간, 갑작스런 굉음과 동시에 이준의 의식은 미궁 속으로 빠져들게 된다.</p> <p>정신을 차려보니 웬 낯선 장소? 거기다 조선시대?</p> <p>이준은 자신의 몸이 '현세'라는 남자와 바뀌었다는 것을 깨닫고 혼란에 빠진다. 더욱 황당한 사실은 현세라는 이 녀석이 글썽, 18살 먹은 농민의 아들이라는 것!</p> <p>도망칠까 고민도 잠시, 이준에게 봄바람 같은 여인 '손연희'가 등장한다. 그녀의 소개로 동학당의 수장 전봉준과 조우하게 되고, 거기서 이준은 점점 그들에게 감화되어 간다.</p> <p>이준은 경찰특공대 출신답게 전봉준을 노리던 자객을 단숨에 무찌르고 그의 전담 호위자리까지 승진한다. 더군다나 경찰특공대 명사수 출신답게, 동학농민군의 조총부대를 이끄는 새롭게 떠오르는 지도자가 되는데...!</p> <p>그러나 승승장구도 잠시, 이준에게 크나큰 슬픔이 닥쳐오게 되고...</p> <p>삶을 중시하지 않던 남자에게 삶의 소중함이 무엇인지, 그 의미를 선물한 동학농민군의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된다.</p>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
**캐릭터  
설명**

- 정이준(주인공, 조선시대이름 : 현세, 18살, 가상인물)
  - 경찰특공대 특등사수 및 공군 특수부대 출신으로, 염세적이고 진지함을 싫어하는 성격
  - 하나뿐인 엄마를 병으로 잃었으며 친척집에서 전전하는 등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냄
  - 조선시대로 넘어가 현세로 거듭난 뒤, 동학3인방을 위해 목숨까지 내던질 만큼 끈끈한 사이로 발전
  - 동학농민운동을 가장 가까이서 체험하며 이를 계기로 새로운 인물로 태어남
- 전봉준(속칭 봉 형, 30대 후반, 실존인물이며 캐릭터 일부 각색함)
  - 고부의 대접주이자 동학농민군 대장
  - 키가 매우 작아 녹두장군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음
  - 주인공 현세의 든든한 형이자 과거의 글 스승
  - 농민군을 하나로 모으는 데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으며, 지략이 뛰어나고 병법에도 해박함
  - 동학농민군의 정신적 지주로서 조선시대 핍박받던 농민의 삶을 뒤바꾸는 혁명적 인물
- 손화중(속칭 형님, 30대 초반, 실존인물이며 캐릭터 일부 각색함)
  - 정읍출신, 무장지역 대접주
  - 아리따운 여동생 '손연희'를 두고 있음
  - 현세를 마음으로 아끼며, 여동생 연희의 짝으로 인정함
  - 차분하고 이성적인 성격의 지도자로서 전봉준과 마찬가지로 동학농민군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음
  - 농민혁명운동에 앞장서 농민군을 이끌고 정부군에 대항하였고, 일본군의 진출을 경계하는 인물
- 김개남(속칭, 개남 아재, 40세 초반, 실존인물이며 캐릭터 일부 각색함)
  - 호남대접주이자 호남창의소 총관령 역임
  - 뜻이 통하는 고부 접주 전봉준, 무장 접주 손화중과 각별한 사이
  - 목소리가 매우 크며 괄괄한 성미를 지녔으나 속내는 매우 따뜻한 인물
  - 주인공을 시건방진 놈이라고 욕하면서도 속으로는 아들처럼 아낌
  - 음치이기는 하나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함(특히 '파랑새'를 즐겨 부름)
  - 불꽃같은 삶을 사는 혁명의 지도자이며, 열혈남아라 불림
- 손연희(가상인물)
  - 해민서 출신 의원이자, 손화중의 여동생
  - 아리따운 얼굴에 고운 성격을 가졌으며 작중 현세와 은애하는 사이
  - 주인공의 주사 트라우마를 고쳐줌

- 주인공이 본래의 현세가 아님을 유일하게 알고 있는 인물
- 뛰어난 의술과 인품으로 농민군의 지지와 사랑을 받고 있음

○ 현중(가상인물)

- 작중 현세의 유일한 혈육이자 되바라진 7세 소년
- 감자를 껍질째 먹을 정도로 먹성이 좋으며 강아지같이 붙임성이 좋음
- 짝 단혀있던 주인공의 마음을 단번에 녹임
- 주인공이 언급하던 토르의 망치를 무지하게 가지고 싶어 함
- 형을 아끼는 마음이 과거와 미래의 주인공 모두를 구원함(Scene Stealer)

○ 그 외 (철중이 형, 자객, 목공 아재들, 조총 부대, 관군들 그리고 이상현)